

山林經營會報

發行人：韓 榮 錫
 主 幹：崔 東 均
 發行處：韓國山林經營者協會
 住 所：서울特別市 城北區 安岩洞
 5 街 134-58
 電 話：923-4372

山林廳長에 鄭 採 鎮 씨

— 山地 効用 極大化 推進 —



정 채 진 청장

政府는 지난달 28 일자로 정부차관급 일괄 인사에 따라 山林廳長에 鄭採鎮 釜山市長을 任命하였다.

鄭 廳長은 취임후 시정지침을 山地効用 極大化에 두고 착실한 자원증식 철저한 산림보호, 실용적 시험연구에 역점을 두어 山林施策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하는데 그의 다채로운 경력과 행정력량으로 보아 침체된 山林行政에 活力을 불어 넣어 줄 것이 기대된다.

鄭 廳長은 大邱출신 (54 세)으로 慶北大를 卒業, 地方公務員으로부터 시작, 서울大 行政大學院을 수료하고 忠北, 全南 副知事, 大邱市長, 內務部民防衛局長, 地方行政次官補, 慶北知事, 釜山市長을 역임한 전형적인 地方行政通으로 알려진 努力家이고 마침 內務部에 있었던 山林廳이 농수산부로 이관됨에 따라 그 어느 때 보다도 농수산부와의 調和있는 施策이 요구되므로 모든 산림관계자들이 크게 기대하고 있는 바이다.

農水産部를 農林水産部로

— 山林廳, 農水産部산하로 다시 복귀 —

政符는 山林廳이 內務部에서 農水産部로 이관함에 따라 농수산부의 명칭을 農林水産部로 變更하는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政府組織法 改正案을 마련, 오는 定期國會에 제출하고 내년 1 월 1 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는데 이는 산림청이 13 년만에 農林部로 다시 복귀하는 셈이다.

山林廳長 施政指針 具現方向

우리는 그 동안 全國土의 66%를 차지하는 山地에 푸른 意志와 富國의 꿈을 심어 헐벗었던 山을 綠化하는데 成功하고 山地의 資源化를 이룩하기 爲해 渾身의 努力을 기울이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山林行政은 經濟·社會發展등 周邊與件에 變化에 따라 이제까지 推進해 온 林産資源의 增殖은 勿論 山을 國民的 所得源으로서 또한 保健休養空間으로서 巨視的인 國土管理 次元에서 보다 效率的으로 活用하고 가꾸며 開發하여야 할 轉換期를 맞이하였다.

따라서 우리 모든 山林公職者는 時代的 要請에 副應하여 第2의 山地革命을 이룩하여야 할 歷史的 召命앞에 서 있음을 自覺하고 우리의 모든 精誠과 사랑과 執念을 오직 山地에 쏟아 우리의 가장 所重한 民族의 資源이요, 賦存資源인 山을 새로운 領土로 가꾸는데 全力을 投球하여야 하겠다.

이러한 使命을 다하기 爲해 山林行政의 基本目標을 「山地效率의 極大化」에 두고 다음과 같이 施政指針을 定하였다.

— 山地效用의 極大化 —

1. 着實한 資源增殖
2. 徹底한 山林保護
3. 實用的 試驗研究

우리가 指向해야 할 至上課題는 山地效率의 極大化이다. 山지를 資源化하기 爲해 모든 山을 經濟林으로 가꾸고, 農山村 所得源으로서 副産物의 開發을 擴大하는등 山林의 直接的 效用을 極大化하여 우리의 生活를 豐饒롭게 하고

荒廢地復舊, 生活空間綠化, 野生鳥獸保護등 環境林業을 積極 推進하여 山林의 間接的 效用을 極大化함으로써 災害를 防止하고 快適한 環境을 造成해야 하는 것이 오늘의 山林行政이 이룩해야 할 當面한 課題다.

이러한 施政目標을 達成하기 爲하여

첫째, 着實한 資源增殖을 推進해 나가야 하겠다.

그동안 綠化는 이룩되었으나 經濟林으로서의 機能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國土의 3分の 2가 山地인 山林國에서 木材의 84%를 輸入해야 하는 實情으로서

앞으로 모든 山林이 經濟樹로 뒤덮이도록 適地適樹原則下에 經濟林을 造成하고, 植栽되지않게 育林管理에도 精誠을 들여 林木生産과 形質改良에 注力하여야 하겠으며

林道施設등 林業基盤을 構築하여 生産性を 提高하는데도 加一層 奮發하여야 하겠다.

둘째, 徹底한 山林保護를 이룩해야 하겠다.

林相이 길어짐에 따라 山붙은 大型化되어가는 趨勢에 있고 間伐등 伐採許可를 憑藉하여 不法伐採가 아직도 根絶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솔잎혹파리의 極盛과 솔껍질각지벌레, 잣나무넓적잎벌등의 새로운 害蟲은 山林資源增殖

에 큰 沮害要因으로 擡頭되고 있다. 앞으로의 山林保護는 從來의 事後措置的 保護에서 벗어나 國民에게 愛林思想을 呼訴하고 豫防活動과 豫察調査를 強化하는 豫防爲主의 保護가 되어야 하겠으며, 組織을 보다 體系化하여 鎮火, 防除, 被害團束을 迅速하게 할 수 있게 하고 裝備의 現代化와 技法의 科學化로 被害를 極少化시키는데 總力을 集注해야 하겠다.

셋째, 實用的 試驗研究를 推進해야 하겠다.

研究機能과 行政機能이 密着되어 試驗研究는 山林行政 需要와 與件變化에 알맞는 보다 實用性 있는 內容으로 推進되어야 하며,

尖端技術과 現代裝備의 果敢한 導入으로 研究方法의 先進化를 期하고,

國內外 研究機關과의 緊密한 協助와 積極的인 情報活動으로 經濟的이고 發展的인 試驗研究를 圖謀해야 하겠다.

모든 山林公務員과 團體, 任·職員은 이 施政指針을 行動綱領으로 삼아 山林行政遂行에 全力을 傾主해 주기 바란다.

林道施設 대상지 選定基準 擴大

— 造林貸付 國유림도 國庫補助시설해당 —

山林廳은 지난 8.13 일자로 民有林 林道施設 대상지 선정기준을 시범적인 임업경영을 하는 篤林家와 國有林을 造林目的으로 대부분은 篤林家도 國고보조 임도시설을 할 수 있도록 擴大하는 內容의 선정기준 (우선순위)을 추가로 마련, 다음과 같이 각 시도에 시달한 바 있는데 이것은 本會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취해진 조치인 것이다.

林道施設 대상지 選定基準 (우선순위)

1. 경제림단지 또는 協業經營林地中 임업경영 (조림, 무육, 벌채, 산림보호 및 관리등)의 시범 효과가 큰 지역
2. 公私有林으로서 구역면적이 500 헥타이상의 林地로서 伐採 및 撫育등 林業經營上 이용도가 높고 保續生産이 가능한 지역
3. 示範的인 林業經營을 하는 篤林家 (國유림을 조림목적으로 대부분은 篤林家 包含)로서 自體 부담으로 副林道 (支線, 分線)의 시설능력이 있는 지역
4. 산주 希望度가 높고 임업경영상 利用度가 높은 地域
5. 林道施設에 따른 多目的效果가 기대되는 地域

山林經營에 關한 設問書 분석

本會는 지난 8월에 산림경영에 관한 설문서 22개 問項을 작성하고 全國會員 466 명을 대상으로 無記名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 그중 28.1%에 해당하는 131 명만이 응답하여 왔다. 이를 집계 分析한 내용을 요약 소개하고자 한다.

○山林을 소유하게 된 동기중, 직접 본인이 매입한 경우가 64.4%로 가장 많았고, 상속이 13.1%, 상속과 본인이 일부매입이 10.4%, 대부림도 10.4%나 되었다.

이는 종래 우리의 觀念이 산림소유는 상속에 의한 것이 많으리라고 생각 되지만 우리協會 會員들은 역시 처음부터 山林經營에 의지를 갖고 있었던 까닭에 상속은 13.1%에 불과하고 직접 매입한 것이나, 일부상속, 대부림의 경우 모두를 합치면 85.2%의 대다수 회원이 처음부터 山林經營의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진다.

○산을 소유하고 있는 이유는 造林育林등으로 용재생산을 目的으로가 응답자 117명중 96명으로 82%로 역시 수위를 점하고 있고, 墓地로 이용은 3명 2.6%, 기타事業所得(표고, 송이등)으로 5.1%,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다가 9.4%, 부동산투자 지가상승 기대는 1명에 불과한 0.9%였다.

이는 종래 우리나라 山林所有 形態가 상당수의 사람들이 묘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조금씩 소유하고 있는 까닭에 規模의 零細性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우리협회 회원들은 역시 規模 면에서는 大山主들이고 처음부터 山林經營의 意志로 所有하고 있는 까닭에 墓地 用途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極히 적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어 부득이 갖고만 있는 사람이 9.4%나 되는 것은 우리나라 山林政策의 단면을 보는 것같아 아쉬움이 많다.

○山林의 경계에 대하여 自己所有山林의 경계를 測量을 하여 분명히 하여 놓았다가 38.8%, 인접산주와 협의하여 정하여 놓았다가 22.5%로 모두 61.3%가 비교적 경계를 분명히 하여놓고 있지만 인접산주와 협의없이 대충 짐작만 하고 있다가 33.3%, 경계가 불확실하다도 5.4%나 되어 38.7%의 산주가 境界分爭의 소지가 있음을 排除할 수 없음도 문제점이다.

○앞으로 所有山林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문항 중 造林, 育林등 山林施業을 계속하겠다는 49.6%, 산을 가꾸는 보람을 느끼며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더 매입하여 山林施業을 하고 싶다가 32.2%로 모두 81.8%의 대다수의 산주가 當初 意志대로 山林經營을 계속 希望하고 있으나 아무런 施業없이 그냥 놓아 두겠다는 2.5%, 살 사람이 있으면 팔아 버리겠다는 15.7%로 앞의 문항 살 사람이 없어 부득이 갖고만 있다는 9.4%보다 훨씬 강력한 山林所有意慾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다.

○山林에 投資한 것을 고생은 하였지만 잘 하였다고 생각한다가 28%, 당장 所得은 없어도 앞으로 希望이 있다고 본다가 45.8%, 모두 73.8%의 대다수 산주가 과거 고생은 하였지만 今後 希望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당초부터 소득을 목적으로 투자한 것이 아니다도 12.7%, 산림에 투자한 것을 후회한다도 13.5%나 되어 앞의 문항 살 사람이 있으면 팔아버리겠다,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어 부득이 가지고 있다는등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들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고 또 앞의 고생은 하였지만 잘 하였다고 생각한다 28%도 꼭 소득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아 기를 때 고생은 하였지만 키워놓고 보면 대견하고 보람을 느끼는 심정과 같은 것이 아닐지?

山主의 所得保障을 이룰 수 있는 積極的인 정책배려가 의당 있어야 되겠다.

○지난 1년간에 山林所得이 있었던 사람은 불과 32.4%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67.6%의 대다수가 所得이 없었다.

○施業命令에 대하여 시업명령은 산을 가꾸지 않는 山主들에게 義務를 부과하는 좋은 제도다는 7.7%에 불과하고 76.1%의 대다수 산주가 시업명령을 받은 일도 없고 篤林家들에게는 自律的으로 시업을 맡겨도 된다고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篤林家들에게는 自律的으로 시업을 맡겨 신고제로 하는등 規制를 대폭 완화해도 자기가 가꾼 山林은 누구보다도 애착이 크므로 정부에서 念慮하는 지나친 노파심은 과감히 버려줄것을 篤林家들의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한결같이 나온 이야기가 그대로 反映된 것이라 여겨진다.

○間伐에 관하여는 間伐對象林地가 없다는 불과 5.0%에 불과하고 간벌대상임지는 있으나 人件費 등을 공제하면 실수익이 없어 안 하고 있다가 41.2%, 伐採手續이 복잡하여 포기하고 있다가 11.8%로 育林的인 면이나 산림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의당 間伐을 하여야할 입장에 있으나 이를 포기하고 있는 산주가 53%나 되는 결과이고 현재 實質收益은 없으나 후일을 위하여 間伐을 하겠다는 4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산주들의 投資意慾이 저하되고 간벌재가 인건비에도 못 미치므로 포기하는 것으로 어제 오늘에 야기된 문제가 아니면서도 아무런 對策이 없으니 안타깝다.

하루빨리 對策을 강구하여 온갖 刻苦 끝에 이룩한 造林이 헛되지 않게 資源造成의 길로 매진 하여야 될 것이다.

○현재 산림계에 대한 반응은 有益하다가 28.7%, 아니다가 33.3%, 잘 모르겠다가 38.0%로 비교적 부정적 측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간과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는 남의기관에 관한 사항을 조사발표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나 우리 山林經營人 회원도 산림조합원이므로 부득이 조사한 것이니 該當機關은 양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현재의 山林事業指導體系에 대한 의견은 현재의 산주지도체계가 그런대로 좋다는 49.5%에 불

과하고 군산림과 山林組合등 지도기관의 지도방법이 좋지않아 아무것도 하기싫다가 23.3%, 큰 관심없다가 23.3%로 46.6%가 부정적이며 산주들과 가장 가까워야할 일선 민원부서(산림과) 간의 갈등이 심하다는 것을 여러측면에서 주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귀하의 소유산림에 적절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 장애요인이 무엇입니까에서 부족한 것 없다가 3.1%, 노동력부족 35.1%, 자본부족 46.5%, 지도력부족 6.1%, 주선할 사람없다 3.8%, 기타 5.4%인데 농촌의 노동력 부족현상과 자본부족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데 山林作業團의 홍보활용과 산림개발자금 융자 이율의 인하조정, 육림사업에 따른 정부보조율을 높여 많은 산주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여야겠다.

○ 귀하는 所有山林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갖고계십니까에서 (1) 1주일에 1번이상 둘러본다가 23.7% (2) 한 달에 한 두번 정도 둘러본다 40.4%, 1년에 한 두번 정도 23.7%, 몇년에 한번 둘러볼까 말까 하는 정도 2.6%, 關係責任者를 시켜 맡기고 있을 뿐이다가 9.6%였다. (1), (2)항을 비교적 관심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 64.1%가 되니 이것으로 자위해 보아도 될지?

○ 내년도(87년) 造林計劃은? 에서 조림할 대상지가 없다가 38.5%, 조림하겠다는 35.5%에 불과한데 조림할 대상지가 있어도 안하겠다는 26.0%나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것 또한 오늘날의 山林施策의 단면을 보는 것 같고 山林經營도 수지맞는 事業이 되도록 政策을 유도하여야 될 것이다.

○ 林道所有現況에 관한 문답에서 응답자가 제일 적은 문항으로 90명에 불과하였으며 응답내용으로 보아 임도에 대한 概念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는듯한 회원이 약간명 있었으며 비교적 대산주 회원이 응답을 하였고 응답한 것만을 정리한 평균 임도밀도를 보면 6.45 m/ha당으로 나타났다. 이는 절대치로 보아서는 아직은 미약한 단계지만 전국 평균 0.07 m에 비하면 월등한 것으로 역시 규모가 큰 소유주들이고 이 중에는 다소 재력이 있을듯한 법인 회원도 포함되어 있으리라 생각되므로 생각보다는 높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앞으로 林道施設計劃은? 에서 하겠다는 30.9%, 하고는 싶으나 보조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가 40.0%로 70.9%가 林道施設意志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임도의 중요성을 점차 크게 인식하고 있는 탓이라 여겨지며 당장은 計劃이 없다가 20.0%, 절차와 수속을 몰라 생각치 않았다고 9.1%된다.

○ 林業裝備面에서도 귀하가 保有하고 있는 장비명을 쓰세요 하였더니 불과 24명만이 응답하였고 포크레인, 트럭, 순산용쫄차, 고압분무기, 기계톱등 현대 장비를 거의 갖추고 있는 회원도 몇명 있었으나 一般的으로 빈약한 상태이고 현대 장비라고 볼 수 있는 기계류 중에서 그래도 제일 많은 것이 기계톱(체인소)이 27개이고 고압분무기, 경운기, 예취기, 가지치기낫, 전정가위등 다양하였으나 모두 기초적 기구류에 불과한 것들이다.

앞으로 장비보급 면에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 山林開發資金融資에 대하여 사용하였다 40.7%, 쓰지 않았다 22.1%, 금후 이자만 쓰면 쓰겠다 37.2%나 된다. 현재 山林開發資金 融資利率 5.5%는 그 절대치는 크지 않더라도 산림 소득이 전연 없는 상태하에서 5.5%는 相對的으로 큰것이 아닐 수 없다.
- 본지 “山林經營會報”에 대하여 내용이 빈약하다 9.6%, 산주에게 별효과가 없다가 7.0%로 16.6%가 부정적인 반면, 그런대로 괜찮다 31.6%, 산주(회원)에게 有益하다고 본다 51.8%로 83.4%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감사하고 자위하기에 앞서 16.6%의 부정적인 쪽이 오히려 채찍질하는 것으로 생각되니 이쪽에 더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 본지 “山林經營會報”는 매일 빠짐없이 모두 읽고 있다 50.5%, 관심부분만 읽고 있다 48.6% 99.1%가 어쨌든 읽기는 하고 있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되며 0.9%만이 받아는 보아도 읽지는 않고 있다인데 이쪽에도 함께 감사를.
- 山林經營者協會加入은 잘 하였다고 생각한다 44.3%, 그저 그렇다(별관심없다) 27.4%나 되며 今後 協會活動에 적극 참여하겠다 26.4%, 가입을 후회한다(탈퇴하겠다)도 1.9%, 잘 하였다고 생각한다 44.3%와 今後 協會活動에 적극 참여하겠다 26.4%를 합치면 70.7%만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무관심해도 27.4%, 가입을 후회한다 1.9%는 탈퇴수속을 해 주려 해도 무기명이니 알 수 없어 못하지만 가입, 탈퇴의 문호는 항상 開放되어 있으니 이를 아시도록.
- 山林經營者協會에 대한 생각으로는 산주를 대변하는 유일한 민간단체다 19.8%, 앞으로 정책건의 자문등 강력한 정부고섭 단체로 육성되어야 한다 75.9%로 현재보다는 앞으로의 기대치가 훨씬 큰 것을 알수 있으며, 정부어용단체 같아서 있으나 마다 하다고 4.3%나 된다.
반성의 계기로 하겠습니다.



금번 설문서는 全國의 466명의 全會員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나 28.1%에 불과한 131명만이 응답하여 매우 저조한 실정이었다. 본회 회원은 政府에서 인정한 全篤林家 514명의 68%에 해당하는 352명의 篤林家를 비롯하여 非篤林家라 하더라도 一般的으로 規模面에서 보나 山林을 이해하는 면에서 단연 수준급에 있는 사람들이고 사계의 명사, 地域社會의 유지등 각양각색으로 다양하지만 活動力이 상당한 분들을 確信하고 있는 터이다. 이러한 狀況에서 볼때 설문서에 대한 응답율이 극히 저조한 것은 매우 여러가지 意味를 뜻하지 않나 생각된다. 생각하는 이에 따라 여러가지로 다를 수 있겠지만 본 설문서를 집계분석한 소견으로는 첫째, 그동안의 協會活動이 너무나 미미하였으므로써 회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킬만한 동기가 되지 못하여 별 관심없이 받아 넘기는 점, 둘째, 오늘날 山林所有主들이 겪고 있는 온갖 고통과 애로사항으로 政府施策에 대한 내면적인 잠재되어 있는 심리적 거부반응도 排除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싶다. 어쨌든 협회는 이러한 것을 계기로 많은 반성을 하여 금후 산주들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속속들이 파악하여 기획 있는대로 관계당국에 건의, 협의를 통하여 회원들의 애로점을 타개하는데 선봉에 서고자 한다.

協會에 하고 싶은 말과 政府에 하고 싶은 말 중에서 대부분의 會員들이 協會에 대하여 많은 격려와 용기를 불러 일으켜 줌으로써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들 주요하고 건설적인 의견들은 차후 기획 있을때 관계당국에 건의등 政策資料에 공하고저 한다.

造林地 事後管理要領 (拔萃)

山林廳은 “造林地 事後管理要領”을 1986.7.31 자로 改定한바 그 중 덩굴치기, 稚樹가꾸기, 가지치기등 育林에 관한 部分만을 拔萃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第6節 덩굴 除 去

第26條 (덩굴除去 對象林地) 덩굴 (특히 칩)에 依한 林木被害가 發生할 憂慮가 있거나 또는 被害가 있는 林地

第27條 (덩굴除去 時期) ① 人力에 依한 除去는 年中 實施할 수 있으나 作業能率을 勘案 追肥, 풀베기作業 및 稚樹가꾸기作業時 並行 實施한다.

② 藥劑에 依한 除去는 덩굴원줄기의 根株를 찾기 容易한 4~6월에 實施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第28條 (除去方法) ① 덩굴에 依한 林木被害가 輕微한 個所는 人力으로 除去하도록 指導한다.

② 藥劑에 依한 除去는 근사미와 케이핀의 두가지 方法이 있으나 經濟的인 근사미處理에 依한 除去方法을 積極勸奨한다.

③ 藥劑調劑 및 處理方法은 別途 덩굴除去 作業要領에 依한다.

第7節 稚樹가꾸기 (除伐)

第29條 (稚樹가꾸기 時期) 長期樹人工造林地로서 造林後 5~10년이 되는 林地가 主對象이 될 것이나 雜木 등이 造林木 生長을 妨害하기 始作하는 年度에 1회를 實施하고 以後 繼續 觀察하여 再被害가 發生하는 時期에 反復實施하되 造林地區域內 部分的 (群狀)으로 發生한 優良天然林도 對象地에 包含한다.

第30條 (除去對象木) ① 造林木 또는 保育目的樹種의 生長에 支障을 주는 잡관목과 덩굴

② 造林木中 被害木과 生長이 不良한 淘汰對象木 (특히 落葉松 劣勢木)

第31條 (作業時期) 除去된 그루터기에서 發生하는 움 (萌芽) 抑制 등을 勘案 6~9月사이에 實施함을 原則으로 하되 人力需給事情 및 指導力 등을 勘案, 11月末까지 完了할 수 있도록 實行한다.

第32條 (作業要領) ① 支障木의 除去部位는 무릎높이 아래를 베도록 한다.

② 造林木을 감고 자라는 덩굴은 藥劑 또는 人力에 依據 除去하고 再發生이 되지 않도록 한다.

③ 造林木 生長에 直接的으로 被害를 주지 않는 下層木은 作業費 節減 및 林地保護上 殘存 또는 頭木作業을 實施한다.

④ 對象地內 造林木이 없는 個所는 自生하는 天然生 形質優良木을 殘存시켜 目的樹種으로 保育한다.

⑤ 造林當時 殘存시킨 優良天然 既成木으로서 가지치기가 必要한 林木에 對하여는 가지치기를 병행한다.

⑥ 其他 事項에 對하여는 別途 稚樹가꾸기 作業要領에 依한다.

第 8 節 가 지 치 기

第 33 條 (가지치기 對象木) 優良한 無節用材 生産을 目的으로 하는 林木

第 34 條 (가지치기 對象樹種) ① 傷處가 癒合이 잘 되는 소나무, 잣나무, 해송, 삼나무, 편백 等 針葉樹와 潤葉樹中에서 참나무 (但, 신갈나무는 除外) 는 力枝以下의 가지를 잘라준다.

② 傷處가 腐敗될 危險이 있는 자작나무, 가문비나무는 죽은 가지와 쇠약한 가지만 잘라준다.

③ 傷處가 썩기 쉽고 癒合이 잘 안되는 단풍나무, 느릅나무, 벚나무, 물푸레나무는 죽은 가지만 쳐 주고 可及的 落枝가 되도록 한다.

第 35 條 (가지치기 作業時期) 生長休止期인 늦가을부터 초봄사이에 實行한다.

第 36 條 (가지치기 作業要領) ① 가지치기는 林木이 울폐해서 光線의 不足으로 아랫가지가 枯死 할 때 實行한다.

○ 針葉樹는 胸高直徑이 8~10 cm 되는 10~15 년째 實施

○ 潤葉樹는 樹高가 6~10 m 자랐을 때 針葉樹보다 일찍 實施

② 作業程度는 처음은 力枝以下의 가지를 쳐주되 (보통 樹高의 $\frac{1}{3}$ 높이) 生長함에 따라 2~3 회에 걸쳐 地上 6m 높이까지 쳐준다.

○ 枯死한 가지

○ 나무의 生長에 影響이 없는 가지

○ 樹冠의 構成에 관계치 않는 不層가지

③ 가지치기는 枝隆部가 損傷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切斷한다. (例示圖 別添)

○ 針葉樹는 枝隆部가 뚜렷하게 突出하지 아니하므로 樹幹에 平行이 되도록 切斷한다.

○ 潤葉樹는 枝隆部가 發達하여 突出이 뚜렷하므로 이 部分이 傷하지 않도록 엇비슷하게 잘라 준다.

④ 潤葉樹는 가지치기를 한 傷處가 잘 아물지 않으므로 直徑 5 cm 以上 되는 가지는 原則적으로 切斷하지 않는 것이 좋다.

樹種別 追肥基準量

○ 山林用 固形複合肥料

區 分	樹 種 別	施 肥 基 準 量	
		本 當	ha 當
有 實 樹	밤 나 무	40 個 (600 gr)	12 包裝 (240 kg)
速 成 樹	이 태 리 포 플 러	20 " (300 ")	6 " (120 ")
	현 사 시	20 " (300 ")	12 " (240 ")
	오 동 나 무	40 " (600 ")	18 " (360 ")
長 期 樹	長 期 樹 種	2 " (30 ")	4.5 " (9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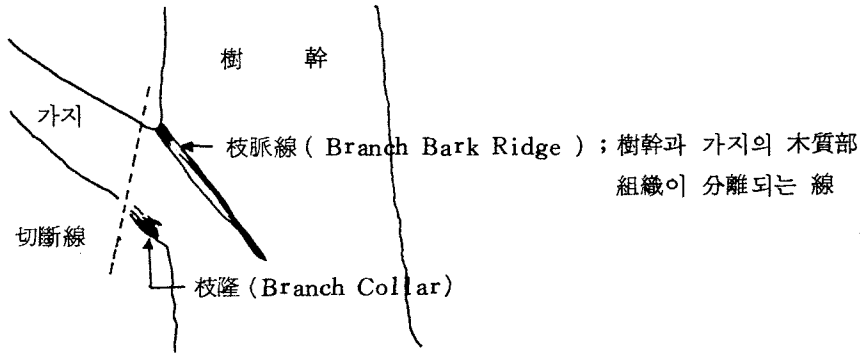
○ 一般肥料

區 分	樹 種 別	施 設 基 準 量 (ha 當)			
		計	尿 素	重 過 石	鹽 化 加 里
有 實 樹	밤 나 무	(420)	(140)	(220)	(60)
		168 kg	56 kg	88 kg	24 kg
速 成 樹	이 태 리 포 플 러	(300)	(70)	(138)	(92)
		120 "	28 "	35 "	37 "
		(300)	(70)	(138)	(92)
	현 사 시	240 "	56 "	110 "	74 "
		(400)	(150)	(200)	(50)
	오 동 나 무	240 "	90 "	120 "	30 "
		(18)	(8)	(10)	-
長 期 樹	長 期 樹 種	54 "	24 "	3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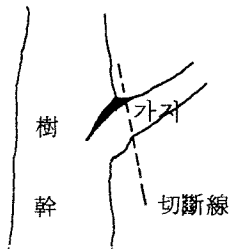
※ () 内는 本當 施肥量 (g)

가지치기 例示圖

<올바른 가지치기 方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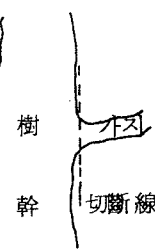


<闊葉樹>



大部分 闊葉樹는 枝隆部가 發達하여 突出이 뚜렷하므로 이 부분이 傷하지 않도록 留意하여 切斷한다.

<針葉樹>



針葉樹는 枝隆部가 뚜렷하게 突出하지 아니하므로 樹幹에 平行이 되도록 切斷한다.

— '86 篤林家인정 및 褒賞候補者 추천 —

山林廳은 模範 및 法人篤林家의 新規認定과 山林經營實績이 우수한 篤林家를 포상 격려하기 위하여 篤林家有成要綱에 따른 후보자 추천을 '86.10.30까지 추천하도록 각 市道에 시달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대상자는 관할 시군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1. 모범 및 法人篤林家

독립가 육성요강 (산림청 훈령 제269호) 제5조에 의거 山林經營實績이 우수하고 社會的 信譽이 두터운 者를 널리 발굴하여 후보자로 추천

2. 篤林家 褒賞

독립가로서 소유산림에 대한 自律的인 經營과 經營實績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 者

(1) 추천인원 : 도당 1명

(2) 제출서류 : 공적조서 (정부표창 규정의 소정양식) 및 공적요약서 3부

3. 優秀 및 自營 篤林家도 적극 발굴하여 認定할것.

※ 既 認定받은 篤林家도 死亡, 住所變更 등 變動事項이 있을 때는 당국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林業界 消息

- 鄭 採鎮 山林廳長 傘下團體長들과 相見禮 : 鄭 採鎮 新任 山林廳長은 지난 9.3 산하단체장들과 相見禮를 겸한 간담회를 갖고 오찬을 함께 하였다.
- 第 18 次 國際林業研究機關聯盟總會 (IUFRO) : '86.9.7 ~ 9.21 간 유고슬라비아에서 개최되는 第 18 次 국제임업연구기관 연맹 총회에 심 상영 林木育種研究所長, 한 영창 연구관, 오 두연 全 北道 임업시험장장이 참석차 출국
- 第 33 次 國際포플러위원회 : 전 서울농대 교수 현 신규 박사는 9.26 ~ 27 벨지움에서 개최되는 제 33 차 국제포플러위원회 집행위원회에 참석차 출국
- 第 14 次 FAO 林業教育 자문위원회 : 서울농대朴 泰植 박사는 9.2 ~ 5 에 유고에서 개최되는 FAO 임업교육 자문위원회에 참석차 출국
- 韓 榮錫 本會會長은 9.1 民主正義黨 政策委員 (農水産分野) 에 被任
- 朴 吉洪 山林廳 營業局長은 지난 8.30 경희대학교에서 항공사진을 이용한 우리나라 활엽수림의 임분구조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 수여받음.

會費를 納入하신 分 (7.10 ~ 9.10)

김한태	부회장	500,000	유형열	이 사	200,000
최기영	"	500,000	최정우	"	100,000
이용호	이 사	200,000	김병연	"	200,000
정순빈	"	200,000	김병용	"	200,000
박명수	"	200,000	남상돈		50,000
김기운	"	200,000 (찬조)	박대규		30,000
이슬용		20,000	정시화		50,000
하문섭		20,000	안태수		20,000
?	(미상)	20,000			

協會費 納入案內

- 計座番號
- 서울신탁은행 : 19501-84009872
 - 농협중앙회 : 001-01-025926
 - 국민은행 : 093-24-0025-624
 - 우 체 국 : 011809-001478012